

성령 안에 걸으라 (2)

신학박사 조 덕운

[이사야 30:21]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네 뒤에서 나는 말을 네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1. 미식 축구와 성령 대화

대언자 이사야께서 하신 위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성령님과의 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로 가든 좌로 행하던 간에 성령님께서 너희의 뒤에서 귀에다 대고 “이것이 가야 할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들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를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와 지식과 안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듣게 되는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식 축구 경기를 티브이에서 보게 된다면 공격팀의 주장적인 쿼터백이 매 플레이 전에 헬멧에 손을 대고 누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눈여겨 보셨습니까? 실제로 NFL [National Football League]에 속한 팀은 공격팀의 쿼터백과 수비팀의 선수 한명의 헬멧에 이어폰을 장착하여 매 플레이 시작 전 15 초 동안에 헤드 코치 및 스타디움의 높은 귀빈석에 자리 잡은 다른 한명의 코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쿼터백과 수비 선수는 게임의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고 다음 번 플레이에 사용할 전술에 대하여 코치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매일 그분의 속삭임을 듣고 사는 모습이 마치 미식 축구 경기에서 이렇게 선수가 코치의 지시를 원격으로 받게 되는 상황과 유사함을 이사야 30 장의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하는 말을 너의 귀가 들을 것인즉” - 이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까? 현대 사회에서 원격 헤드폰 기술을 통하여 선수가 코치의 지시를 받아 플레이를 함으로써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방식을 어떻게 2,700 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께서 정확히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 원격 대화 방식을 이미 만드시고 실행하셨기 때문이며, 우리 인간은 20 세기에 와서야 그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심오하고 기묘합니다.

2.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일까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결과 다음 네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성장하게 도우십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십니다.

넷째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늘 왕국으로 가는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 네 가지에 관하여 좀더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3. 성령의 역사 1: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함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 안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일로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천사에게 물었지만 천사 가브리엘은 설명하기를,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분을 마음 속으로, 그리고 입술로 증언하여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우리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의 영적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여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마리아의 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덮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과 인생 전반에 폭 넓게 덮이게 된 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작은 생명이 여자의 몸 안에 잉태될 때에 그의 부모의 깊은 관심과 큰 사랑이 그 태아에게 가게 됩니다. 그 부모는 모든 주의를 기울여 이 태아가 잘 자라서 태어나도록 사랑의 돌봄을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폭 넓게 부여지게 되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훌륭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5: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여졌기 때문이니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 몸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지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을 또한 바울께서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8:10-11]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남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면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생명 탄생 역사를 니고데모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진리가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5-7]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전파하면,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생명 탄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지금 그 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풀리고, 따라서 죽음의 두려움과 속박에서 풀린 참된 자유로운 영혼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사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던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지도록 하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의 재물로 기꺼이 바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셨으니 “할렐루야”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얻게 된 이 소중한 자유로운 혼과 몸으로 예수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4. 성령의 역사 2: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심

한 가정에 태어난 어린 아기가 맨 처음으로 “엄마” 그리고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커다란 기쁨을 안겨줍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성장하는 자녀에게 이 세상 사는 지혜와 지식을 전수해 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포함하여 모든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영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가정 교사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 볼 때에 훨씬 큰 혜택을 입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고린도전서 2:12-13]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며,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혀서 세상사를 분별하고, 생과 사의 문제를 확실히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과 우리가 천국에서 상속 받을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에 대하여 잘 알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도록 함으로써 주 예수의 온전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가정 교사입니다.

[에베소서 1:17-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19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아닌 거룩한 성전이 된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 무너져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자녀들 개인의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존재로서 각각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성전은 어떤 군대나 무력도 파괴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매일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지켜나아가는 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책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19-20] 도대체 무슨 말이나?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2:5]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직분이 이렇게 훌륭한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영과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귀한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